



朴 桂 東

東馨電線(株)·東一電子通信(株) 社長

時代的 요청에 副應할 수 있는 基盤構築

大望의 80年代도 절반은 지나갔다. 70年代 後半의 어수선했던 過渡期에 비하면 政治·經濟的인 면에서 安定을 이룬 時點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또 다른 면에서의 不安·萎縮心理가 우리 周圍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國內外的으로 政治·經濟·思想理念·軍備·技術面에서 激變을 기록하였던 前半 5個年에 비하여 後半에 펼쳐질 歷史의 章 또한 不確實性的의 時代로 특징지어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周圍環境 속에서 經濟活動의 主體인 우리 企業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時代的 요청에 副應할 수 있는 각자의 基盤構築이 되어 있지 않고는 產業高度化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없으리라고 본다.

本人이 經營하는 東一電子通信(株)는 이제 創業 14年째 접어드는 電子·通信의 部品 專門 메이커이다. 電子렌지용 트랜스포머를 비롯하여 各種 코일 및 솔리노이드 등 卷捲作業을 통해 製品이 만들어진다. 國內供給에 注力하던 營業戰略에서 5大洋 6大洲로 視野를 돌린지 이제 10여년, 初期의 보잘 것 없던 Buyer들이 제법 큰 顧客으로 成長하는 경우는 꽤 鼓舞的이다. 처음에는 힘만 들고 遼遠해 보이기만 하던 美國의 大企業들로부터도 이제 讚辭를 듣게 되는데, 노력한 代價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평범한 眞理 속에서 企業經營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된다. 우리 會社는 83년에 이어 84년에도 G. E社의 最優秀 部品供給業體로 選定된 바 있다. 本人은 恒時 「우리 商品을 믿어 주시오」 하기 以前에 믿게끔 만드는 것을 經營哲學으로 알고 늘 직원들에게도 말하곤 한다.

東一電子通信보다는 2年뒤에 創業한 東馨電

線(株)는 部品の 基本素材인 마그네트와이어(一名: 에나멜 銅線)의 最大專門메이커로 自他가 共認한다. 마그네트와이어란 電子·電氣·通信分野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素材로서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難題였으나 投資規模가 막대한 裝置工業이었기에 누군라도 선뜻 投資를 꺼려하던 時期에 東馨電線이 誕生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만 해도 거의 全量 마그네트와이어의 輸入없이는 電子·電氣·通信製品과 部品の 生産을 해결하기는 어려웠으나 國產化가 실현되어 輸入代替가 이루어진 후, 外貨節約은 每年 놀랄만큼 上昇되어 갔다. 아마 國內全般的으로 이루어지는 輸入代替效果는 가히 1億弗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주위의 觀測이다. 또 每年 技術革新을 이룩하여 0.02%의 超極細線을 비롯하여 폴리 아마이드 이미드 와이어(Polyamide Imide Wire) 등의 高級製品도 自體研究開發로 생산하여 이미 작년, 國內最初로 DMC-H, H₁, H₂, F 등 4種에 대한 U/L 正式承認을 得한 바 있다. 각설하고 앞서 언급한 東一電子通信과 더불어 重要部品과 素材를 담당하는 우리 企業이앞으로 해야 할 使命感은 막중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電子工業 高度化라고 하는 것도 重要部品の 根源的 해결없이 는 沙上樓閣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國際的인 상황을 보면, 美國을 위시한 經濟大國들의 保護貿易 強化措置는 輸出伸張에 制動을 가했으며, 우리를 추격하는 開發途上國들의 挑戰은 輸出價格 採算性을 크게 惡化시키는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또 美·日 등 西方經濟先進國(O. E. C. D)들의 經濟實質成長率도 작년의 4.75%

에서 금년엔 고작 3% 수준으로 예견되며, 開發途上國들의 景氣鈍化 豫測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이러한 周圍 環境 속에서도 企業은 각자 나름대로의 自求策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本人 역시 年初 始務式에서 新年設計를 任職員들과 더불어 闡明한 바 있다. 즉 今年度 6大經營指標로서

첫째 經營의 內實化, 둘째 事業實績의 極大化, 셋째 人力의 精銳化, 네째 全社의 品質管理의 定着化, 다섯째 技術開發의 促進 그리고 여섯째로는 우리 모두의 意識改革을 主唱한 바 있다. 多邊·多性·多元化되어 가는 時代에서 무엇보다도 「唯我獨尊」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人和와 團結을 이루지 않고는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任職員 모두의 意識改革을 통한 主人意識의 실천과 目的意識의 共有가 없이는 모두의 力量은 集結·擴散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意識改革의 必要性을 力說한 바 있다.

앞으로 다가올 90年代는 지금과 또 다른 綜合產業 高度化를 통한 情報競爭時代로 접어들 것이다. 모든 것이 自動化·컴퓨터化하여 CAD (Computer Aided Design),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이 실현되어 Robot의 機能과 役割이 倍加될 것이며 無人宇宙停留場의 實用과 宇宙尖端科學의 日就月獎으로 外界人과의 軍縮會談도 상상해 봄직하다. 현재 世界는 尖端電子產業의 寶庫를 先占키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半導體·컴퓨터周邊機器·光通信技術의 同伴發展을 토대로 하여 우리 社會는 綜合情報通信網을 실현시키고 있는 차제에 本人이 擔當하는 部品分野에도 技術革新의 피나는 노력에 잠시도 쉴 틈을 許容치 않는다. 電子レンジ用 트랜스포머만 하더라도 容量은 커지고 Size는 縮少되어가는 輕薄短小化 趨勢이다. 금년들어 우리 會社도 技術·開發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代案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의 製品을 質的·量的으로 高速成長을 이룩하기 위한 體質改善方案과 향후 3個年 發展計劃을 수립하

여 놓고 있다.

長·短期的인 投資計劃을 포함하여 新規事業의 可能性을 조심스레 打診하고 있으며 우리 會社와의 모든 去來先(協力業體 包含)과도 共同運命의 同伴者 意識鼓就와 共存共榮을 부단히 모색해 나갈 것이다. 本人으로서는 제 2의 創業精神을 가지고公私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의 戬과 노력이 90年代 初半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곤 한다.

本人은 新年設計를 論하는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所信을 밝혀 두고자 한다.

企業은 利潤追求의 利益社會(Gesellschaft)인 만큼 利潤을 創出해 내지 못하는 企業은 淘汰되고 만다는 持論이다.

앞으로의 輸出이나 國內營業도 마찬가지로 高附加價値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企業은 畧畧의 늪을 헤어날 수 없다.

또 하나는 關聯產業과의 共同參與意識이 없이는 獨走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同種 業界間에도 協調·協力の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振作되어야 할 것이다.

本人의 平素 信念 가운데 하나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일도 주어진다」는 것이고 專門分野에 全力을 기울여 열매를 맺고 昇華시켜 나아가는 길이 곧 내 家族·從業員·社會·國家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愛國·愛族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事業報國의 使命感 深化이다. 企業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企業의 成長은 곧 社會環境의 結實을 가져온다는 順理를 터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官과 民, 企業人과 從業員, 購買者와 販賣者 등 相對的 개념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人間精神의 發露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궁극적인 共同目的意識의 共有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80年代의 후반은 지난 날의 과오나 試行錯誤를 되풀이 하지 않는 大跳躍의 路程이 될 수 있도록 誠實하고 勤勉하게 最善을 다 할 뿐이다.